

전이(Transfer)를 제고한 음악감상 수업방안 연구 - 대학교 음악 비전공 학습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usic Appreciation Class Plans for Transfer - Focused on non Music based Learners of University -

이 보 림*

Bolim Lee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교 음악 비전공 학습자의 음악감상 수행능력 전이 강화에 초점을 둔 감상수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드프릭(Midfrie) 음악비평모형(Lee, 2018)을 모체로 하여 맥타이와 위긴스(McTighe & Wiggins, 2005)의 전이관련 논의를 융합하는 방식으로 음악감상 수업모형이 설계되었다. 또 수업모형에 대한 실제적 해석을 위해 음악감상 수업 대본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수업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과정에서 일곱 가지 교수적 시사점을 도출하게 되었고, 이는 모형의 적용에 있어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 사료된다.

주제어: 음악감상, 전이(Transfer), 전이기반 음악감상 수업모형, 음악감상 수업대본, 음악 비전공 대학교 학습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teaching plan focused on strengthening the transfer of music appreciation performance. Specially, it's for non music major learners of university. For this, the music appreciation class model was designed by fusing McTighe & Wiggins's transfer-related discussions(2005) using the Midfrie music criticism model(Lee, 2018) as a parent. Also for the practical interpretation of the class model, the script for music appreciation class was additionally presented. Thus, seven pedagogical implications were obtained from the process of drawing the blueprint of the class, which is expected to serve as a guide in the application of the model.

Key words: music appreciation, transfer, music appreciation class model, music appreciation class script, non music based learners of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E-mail: piano777@snu.ac.kr

© 2019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http://dx.doi.org/10.30775/KMES.49.2.111>

I. 서론

대학교 내 음악 감상교육의 당위성은 학습자의 높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 한 대학교의 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 감상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44%가 하루에 두 시간 이상 음악을 듣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는데(Yoo, 2013; Choi, 2016), 이는 음악 청취에 대한 대학교 학습자들의 선호도를 입증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대학에서의 음악감상교육은 얼마나 부합하는가? 학술적인 필요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내에서의 음악 감상 수업모형이나 수업 방안 등에 대한 교수설계 연구는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 초·중·고등학교의 기간 동안에 배워온 감상교육을 연이어 배울 수 있는 마지막 제도권 기관은 대학이다. 즉, 대학은 대다수의 음악적 소비자가 되는 대학교 학습자들을 더욱 현명한 감상자로 양성시킬 책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교육현장의 발전을 도모하는 교육연구 실태로 비추어볼 때 대학 감상교육연구는 여러 연구자에 의해 다양하게 진행되어온 초·중·고등학교급 연구의 양상과 확연하게 다른 온도차를 보인다. 연구에 대한 이러한 무관심은 교수학습 질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이것을 음악에 적용하면 ‘아는 만큼 들린다’ 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감상은 단순한 듣기를 반복하는 방식으로서 진행되는 형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음악적 지식을 이해함으로써 더욱 높은 차원의 예술적 경험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감상교육의 핵심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논의는 학습자의 음악에 대한 수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즉, 감상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수동적인 청취형을 탈피하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감상자로 인생의 전반에서 음악의 향유자, 더 나아가서는 음악의 참여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도록 도울 수 있다. 이러한 실현을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늘 들었던 것 같은 음악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생경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감상수업시간에는 감상하는 가이드를 제공해주는 선생님이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선생님이 없다. 혼자서 낯선 과제를 맞닥뜨리게 된다. 이 새로운 상황에 나 홀로 주체적인 학습자로서 감상수업시간에 이해했던 내용과 방법을 가지고 ‘새로운 음악’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 때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聞一知十)’의 경지가 필요하겠고, 이것이 ‘전이(Transfer)’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학습에 대한 전이는 사실상 교육의 핵심적 목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학자에 의해 언급되어져왔다.

교육학적 관점에서 전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학습의 결과가 다른 유사한 학습에 적용·연계되는 현상’이다(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1). 전이는 보통 '학습의 실천적인 맥락'에서 언급된다. 맥타이와 위긴스(McTighe & Wiggins)는 어떤 것을 유능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이미 학습한 것을 새로운 또는 가끔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전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McTighe & Wiggins, 2005, p.41), 이것을 위해 교수자는 학습자로 하여금 여러 다른 상황, 이슈, 문제들에 전이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논의한다(ibid, p.40). 계속해서 이들은 전이가 학교 교육 안에서 선택이 아닌 모든 교수의 목적이라고 주장하며(ibid, p.44), 학습을 전이하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훌륭한 교육의 핵심이라 피력한 Bransford 외의 논의(Bransford et al., 2000, p.51 Requoted from ibid, p. 40)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가네와 예코비치(Gagne et al., 1993, p. 352-369)는 어떠한 환경과 목적을 위하여 습득한 지식을 또 다른 상황이나 목적을 위해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발드윈과 포드(Baldwin, & Ford, 1988, p. 63-65)는 학습자들이 개인과 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지식, 기술, 능력 등을 학습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논의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학교 음악 비전공 학습자가 새로운 상황에서 생경한 음악 작품을 감상할 때 음악의 여러 측면을 주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악을 깊이 있게 바라보도록 하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수업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것이 바로 음악감상 수행의 전이를 가능하게 돕는 수업이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클래식이라는 장르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첫째, 클래식 장르가 가지는 예술성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학습자가 이해 부족으로 인해 감상을 기피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해를 함양시켜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자 하기 위함이다. 둘째, 대학교 학습자가 주로 선호하는 대중음악은 그 생성근간이 클래식과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클래식을 깊이 있게 아는 것이 대중음악을 더욱 많이 이해하기 위해서도 도움을 줄 것이라 사료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의 실현을 위해 음악감상 수업모형의 근간으로 활용할 미드프릭(Midfrie) 음악비평모형(Lee, 2018)을 살펴보고, 또 전이의 개념 등 주체적 수행능력의 실현을 위해 근거가 될 만한 전이관련 논의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특별히 그 학술적 중요성으로 인해 다양한 학자들이 전이의 개념에 대해 논의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맥타이와 위긴스(McTighe & Wiggins, 2005)의 논의를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이는 이들이 전이 학습을 위한 교수적 소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였기 때문이고, 동시에 현 2015 개정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많은 부분 이들의 이론이 적용된 만큼 대학교 학습자들의 교육적 연계성을 고려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본 모형과 이론을 융합하여 전이를 제고한 음악감상 수업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음악에 더욱 심도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음악적 렌즈를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맥타이와 위긴스의 ‘전이(Transfer)’관련 논의

단순히 많은 것을 알고있는 것과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맥타이와 위긴스는 후자의 경우에서야 비로소 유창하고 유연하게 학습을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전이가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연구의 맥락에 맞게 진정한 이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이의 의미와 특징, 전이를 나타내는 교수적 소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전이의 의미

맥타이와 위긴스는 “전이란 이해, 지식, 기술의 효과적인 사용을 의미한다.” 라고 하였으며, 진정한 이해에 대해 “맥락속에서 효과적이고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해한 것, 즉 전이할 수 있는 상태”와 같다고 언급한다. 이해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일이나 환경에서 연관된 지식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을 때(McTighe & Wiggins, 2005, p.7), 이해와 전이, 이 둘의 관계가 교수·학습 상황에서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전이의 특징

맥타이와 위긴스가 논의하는 전이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J. McTighe, 2019, 08, 15, personal communication).¹⁾

먼저, 단순하고 간단한 인지나 기억의 소환 정도가 아닌 실제적 활용을 요구한다.

둘째, 그 적용은 새로운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암기 학습의 결과로서 성취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닌 생경한 상황에서의 적용을 의미한다.

셋째, 전략적 사고와 같은-생각 없이 기술과 사실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숙고의 평가가 요구된다.

넷째, 선생님의 가르침이나 도움 없이 자율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이 내용은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이론을 논의한 맥타이(Jay McTighe)로부터 연구자가 직접 이메일로 받은 자료에서 인용한 것임을 밝힌다(2019. 08. 15).

마지막으로, 학술적 이해, 지식, 기술과 마찬가지로 좋은 판단, 자기 통제력, 지속성과 같은 사고방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3) 전이를 위한 교수적 소재

맥타이와 위긴스(McTighe & Wiggins, 2005)는 교수 학습 상황에서 전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들이 전이와 관련하여 언급한 교수적 소재를 '전이를 위한 교수 전략'으로 설정하였는데 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이해의 여섯 가지 측면(Six Facets of Understanding)

맥타이와 위긴스(McTighe & Wiggins, 2005)는 완전하고 성숙한 이해에 대해 아래 소개되는 여섯 가지 측면을 충분히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며, 이는 전이 능력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들은 넓은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여섯 가지 측면이 목표를 시사하고 있으며, 전이를 위해 가르칠 때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McTighe & Wiggins, 2005, p.84~85).

① 공감(Empathy)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서 이치에 맞고 합리적이며 의미 있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신중한 행위이다. 독일의 학자 테오도르 립스(Theodor Lipps)는 청중이 예술 작품 또는 퍼포먼스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20세기 전환기에 '공감'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McTighe & Wiggins, 2005, Requoted from p.89). 공감은 단순히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는 이상하고 생경하게 보았던 것들에 대해 이해하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하도록 이끌 수 있다(McTighe & Wiggins, 2005, p.98~99).

② 적용(Application)

새로운 상황 그리고 다양하고 현실적인 맥락에서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이다. 만약 물리학 교수가 깨진 램프를 진단하고 수리할 수 없다면 그의 지식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것은 이해가 결여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블룸(Bloom, 1956)과 그의 동료들은 적용을 이해의 핵심으로 파악하였으며, 많은 수업시간에 발견되는 끝없는 끼워 맞추기(plugging-in)와 빈칸 채우기 등과 같은 허위 수행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았다(McTighe & Wiggins, 2005, p.92~94).

③ 설명(Explanation)

세련된 그리고 적절한 이론과 사례로서 사건, 행동, 생각에 대한 정당하고 식견 있는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듀이가 설명한 바와 같이, 어떤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다른 것과의 관련성 안에서 그것을 아는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기능하는지 인과관계가 무엇인지를 작성하는 것이다(McTighe & Wiggins, 2005; Kang. et al., trans, 2008, p.137). 우리는 우리의 의견에 대한 지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McTighe & Wiggins, 2005, p.85~88).

④ 관점(Perspective)

비판적이고 통찰력있는 견해로서, 이해의 측면으로서 관점은 성숙한 성취, 아이디어를 다른 유리한 지점으로부터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 얻은 이해를 뜻한다. 브루너(Bruner, 1996, Requoted from McTighe & Wiggins, 2005, p.89)는 한 가지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언급한다. 가드너(H. Gardner, 1991, Requoted from ibid, p.95)또한 이해가 나타나는 중요한 징후는 각각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나타내는 능력이고, 가지각색의 이론은 위치로부터 그것의 해결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계속해서 그는 단 하나의 융통성 없는 표현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McTighe & Wiggins, 2005, p.95~97).

⑤ 해석(interpretation)

의미를 제공하는 해석, 이야기(narratives), 번역(translations)이 이에 해당된다. 키에르케고르(Kierkegaard)의 말처럼, 이야기가 없는 상황은 우리를 두려움과 떨림에 몰아넣을 수도 있다(Kierkegaard, 1996, p. 90, Requoted from ibid p.89). 이해를 위한 이야기를 단지 마음을 비옥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유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란 것이다. 이야기는 역사, 문화, 예술 어디서든 간에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의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해석은 단순한 그럴듯한 설명이 아니라 의미이다. 브루너(Bruner)가 언급한 바와 같이 흥미 있는 해석은 항상 논쟁적이며 '완고하게 복합적'이다. 모든 해석은 개인, 사회, 문화 그리고 그것들이 발생하는 역사적 맥락에 얽매인다. 그리고 설명과 해석은 서로 관련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서로 다른 것이다. 이론은 일반적인 것이며, 해석은 맥락적이고 독특한 것이다(McTighe & Wiggins, 2005, p.88~92).

⑥ 자기지식(self-Knowledge)

자기 스스로의 무지함에 대해 깨닫는 지혜이며,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패턴이 어떻

게 이해와 선입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이해해야만 한다. 일상적 삶에서 자기스스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조절하는 능력은 이해를 반영한다. 메타인지는 대상에 대해 어떻게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자기지식과 관련이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공부방식과 우리의 이해(혹은 이해의 부족)사이에서의 관계적 측면과도 관련이 있다(McTighe & Wiggins, 2005, p.100~103).

(2) 주요 아이디어(Big Ideas)

맥타이와 위긴스(2005)는 주요 아이디어(big Ideas)가 애매하고 추상적인 개념이나 단순한 또 하나의 사실이 아닌 사고를 날카롭게 만들어 주고 단편의 지식들을 연결해 주며 학습자가 전이 가능한 적용을 할 수 있는 개념적 도구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이 논의한 주요 아이디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McTighe & Wiggins, 2005; Kang, et al., trans, 2008, p.98).

- 어떤 학문에도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개념적 “렌즈”를 제공하는 것
- 많은 사실, 기술, 경험을 연결하고 조직하는 연결의 폭을 제공하고, 이해의 핵심을 제공하는 것
- 해당 과목의 전문적 이해의 중심에서 아이디어를 짚어내는 것
- 그것의 의미나 가치가 학습자에게 불명확하고, 직관에 어긋나거나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심층적 사고’가 요구되는 것
- 중요한 전이 가치가 있는 것; 오랜 시간 동안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교 밖에서 수평적(교과 간)으로 또는 수직적(학년 간)으로 중요한 연구나 이슈를 적용하는 것

(3) 핵심 질문(Essential Questions)

맥타이와 위긴스(2013)는 핵심질문에 대해 핵심생각을 더욱 명료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주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교수자에게 실효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피력한다. 이 핵심질문을 이용하여 수업을 하면 초점에서 벗어난 수업을 피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거에서 지적인 밀알을 구분해내고, 무엇보다 이것을 통해 이해(understanding)와 전이(transfer)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지켜낼 수 있다(McTighe & Wiggins, 2013; Jung, et al., trans, p.53). 핵심질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개방형이다. 즉, 하나의 최종적인 답이 없다.
- 사고를 촉발하고 지적으로 몰입하게 하며, 종종 토론과 논쟁을 유발한다.

- 분석, 추론, 평가, 예측과 같은 고차원적인 사고를 요구한다. 단순 암기만으로 효과적인 답을 얻어낼 수 없다.
- 한 과목 안에서(혹은 하나의 과목을 초월해) 중요하고 다른 분야까지 적용 가능한 생각을 유도한다.
- 부가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추가적인 탐구활동을 촉발한다.
- 단지 답만이 아니라 정당한 근거와 지지를 요구한다.
-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질문이 되풀이된다. 핵심 질문은 거듭해서 반복될 수 있고, 반복되어야 한다.

2. 미드프릭(Midfriec) 음악비평모형

미드프릭 음악비평모형(Lee, 2018)은 음악감상 학습자의 감상 능력 향상과 함께 비평적 체계성 함양을 목표로 스톨니츠(Stolnitz, 1960)의 예술비평모형과 펠트만(Feldman, 1970)의 미술비평모형을 융합하여 음악교과에서의 비평수업에 적합하도록 만든 고안된 것이다. 발표 당시 전이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으나, 우수성은 인정받았으므로, 본 연구에서 전이 관련 논의와 융합하여 발전시킬만한 연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새로 개발할 모형의 모체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 모형을 나타내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Midfriec music criticism model

Level of criticism	Types of art criticism	Goals of learning & teaching	Method
1. Music listening	-	· Learners can concentrate on music	Without discussion
↓			
2. Initial reaction	Impressionist criticism	· Learners can discuss about first impression · Learners can talk about how I feel after appreciation	Discussion
↓			
3. Description	Criticism by "rules"	· Learners can describe through application music concepts. · Learners can external characteristics.	Lecture and discussion
↓			

4. Formal analysis	Intrinsic criticism	· Learners can indicate about the musical form. · Learners can speak the total structure of music.	Lecture and discussion
↓			
5. Re-listening	-	· Learners can concentrate on music again.	With discussion, but it's not mandatory
↓			
6. Interpretation	Intentionalist criticism	· Learners can infer the composer's intense. · Learners can explain the subject of music.	Lecture and discussion
↓			
7. Evaluation	Contextual criticism	· Learners can speak contextual story in music history · Learners can evaluate the music through comparison.	Lecture and discussion
↓			
8. Comprehensive dritic	All kinds of criticism	· Learners can critic by all kinds of criticism · Learners can speak the reason why they like the music or not.	Free debate

3. 선행연구 분석

먼저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황은연(Hwang, 2012), 유명한(Yoo, 2013) 그리고 최진호(Choi, 2016)는 각각 그들의 연구에서 음악감상에 대한 대학생들의 현재 상황이나 생각 등을 알 수 있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실태 조사는 음악감상의 전이를 위한 교육에서 학습자의 시작점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현경실(Hyun, 2011)과 최원선(Choi, 2015)은 영화를 활용하여 대학교 학습자의 클래식 음악감상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고자 이에 관한 수업설계연구를 진행하였다. 두 연구의 공통점은 영화음악을 중심으로 교수법을 제시하여 접근성 면에서 유의미한 연구라고 판단될 수 있으나, 학습자 삶으로의 연결고리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고 여겨진다. 계속해서 주성희 & 이미선(Joo & Lee, 2015)은

대학교 교양음악 시간 내 적용할 수 있는 서양 음악의 이해에 대한 수업지도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초·중·고와는 달리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대학 음악교육에서의 방법론적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의 주체성과 실천성에 대한 고려가 더욱 필요한 부분으로 인식된다고 볼 수 있겠다. 더 나아가 외국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실험집단을 설정하여 실험연구를 하는 경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Brittin(1996)와 Woody & Burns(2001)는 각각 그들의 연구에서 실험대조군을 형성하여 대학교 음악 비전공 학습자의 음악감상 양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음악감상에 대한 학습자들의 다양한 변수에 대하여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감상능력 향상을 위한 현재 기반 실질적 교수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Gordon(1996)와 Smialek & Boburka(2006)는 앞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실험대조군을 활용하였으며, 더욱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감상교수법의 요소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실천적 지속성의 고려가 부재했다는 점으로 인해 연구의 활용적 가치에서의 타당성이 다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III. 전이를 제고한 음악감상 수업 모형

수업모형은 단계적, 압축적, 전략적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Kwon et al., 2017). 하나의 수업 모형 안에 이 세 특성이 모두 발현되어 가장 최선의 수업을 설계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 각 특성을 간단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수업 모형은 시간적 흐름에 대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나타내준다. 그렇기에 교수자는 교수할 내용의 순서를 기억하고 전체 수업을 이끌어 갈 수 있게 된다.

둘째, 수업 모형은 수업할 내용과 방법을 압축적으로 나타내준다. 이것은 교수·학습 내용의 방대함을 축약하여 가시화 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교수자로 하여금 교수내용의 누락과 중복이 없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도와준다.

셋째, 수업 모형은 학습자에게 효율적인 수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수업 도구가 된다.

이러한 특성들은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모형의 각 요소에서 나타나게 된다.

1. 모형의 요소

본 모형에서는 수업의 단계와 각 단계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과 음악적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항목별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단계

수업의 절차를 나타내는 단계는 맥타이와 위긴스가 '전이의 징후'라고 논의한 '이해의 여섯 가지 측면'을 미드프릭 음악비평모형(Lee, 2018)의 단계와 융합하여 설계하였다. 각 단계는 맥타이와 위긴스가 '여섯 가지 측면'을 개발하며 설정한 상태와 마찬가지로 위계적 성격은 포함하지 않았다.

2) 기술적 방법

단계는 음악적 전이를 위한 핵심적 전략이 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단계'에는 음악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나타나있지 않았기 때문에 단계의 구현을 위해 추가적으로 '음악적으로 어떻게 배우고 가르치는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한 것이 바로 이 '기술적 방법' 항목이다. 이것은 각 단계별 교수 방법이며 교수의 최종 목적이 된다. 특별히 여기서는 맥타이와 위긴스가 전이를 위해 개발한 '핵심 질문' 원리를 통해 발문을 설계하여 활용하였고, 이는 학습자 감상능력의 전이 제고를 위해 사고를 촉발하는 주된 도구로 쓰이게 된다.

3) 음악적 주요 내용

단계와 방법이 '틀(Frame)'이라면 그 안을 채울 '내용(Contents)'이 필요할 것이다. 바로 '무엇을 배우고 가르치는가?'에 해당되는 항목으로서, 맥타이와 위긴스가 '전이를 위해 꼭 필요한 개념적 렌즈'라고 주장한 '주요 아이디어(Big Ideas)'의 원리를 통해 음악적 주요 내용을 설정하였다. 교수자의 교수 설명과 발문에는 물론 학습자간 토론, 사전·사후검사의 루브릭(Rubric) 등 본 연구의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된다. 이는 클래식은 물론 모든 음악작품에 적용될 수 있는 핵심 개념을 추출한 것으로서 학습자가 생경한 음악을 감상할지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음악적 렌즈'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 전이기반 수업모형 생성과정 다이어그램

<Table2>는 미드프릭 음악비평모형(Lee, 2018)과 맥타이와 위긴스(McTighe & Wiggins, 2005)가 전이와 관련하여 논의한 교수적 소재를 융합하여 설계한 전이 기반 음악감상모형의 생성과정을 전체적으로 펼쳐놓은 다이어그램이다. 구체적인 해설은 하단에 이어질 '단계별 교수방법 및 유의점'과 '수업 대본'을 통해 확인하기로 한다.

<Table 2> The development process of transfer-based learning & teaching model for music appreciation

	Midfrie model (Lee, 2018)		Six facets (McTighe & Wiggins, 2005)	Transfer-based learning & teaching model for music appreciation		
	Level	Trait		Level	Technical method	Musical big ideas
1	Music listening	Listening	-	The first appreciation	Appreciation	Intrinsic aspect of music
2	Initial reaction	impression criticism	Empathy	Emotional empathy	Active acception	Feeling, emotion, etc
3	Description	Criticism by "rules"	Application	Conceptional application	Distinguish musical concepts	Rhythm, melody, chord, tempo, etc
4	Formal analysis	Intrinsic criticism	Explanation	Structural explanation	Expression musical structure	Repeat, variation, contrast, etc
5	Re- listening		-	Re-appreciation	Appreciation	External aspect of music
6	Interpretation	criticism about intention	Interpretation	Contextual interpretation	Understanding about conceptuality	Period, culture, composer, Style, etc
7	Evaluation	Contextual criticism	Perspective	Critical perspective	Insight for musical aesthetic	Criticism about a variety aspects
8	Comprehensive Critic	All kinds of criticism	Self-knowledge	Comprehensive self-knowledge	Musical inwardness	What I know or not yet, prejudice about music

3. 수업모형의 단계별 교수방법 및 유의점

위 모형을 바탕으로 수업할 경우 각 단계별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1단계

아무런 사전 정보도 없이 음악을 감상한다. 단, 교수자는 이후 단계들에서 일어날 교수 사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예를 들면, 음악을 통한 다양한 측면을 살펴볼 것인데 그것은 정서, 개념, 구조, 맥락, 비평, 종합적 자기 지식이다. 그리고 ‘관현악곡을 들을 것이다 또는 피아노 작품을 들을 것이다.’ 등의 간략한 정보는 선제공하하도록 한다. 그 후 바로 다음 단계에서 나올 정서에 대해 언급하며 능동적으로 음악을 수용할 것을 장려하며 감상 시작과 동시에 감상이 모두 완료된 후의 느낌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도록 유도 한다.

2) 2단계

음악을 감상하고 음악에서 공감되는 느낌을 여과없이 표현하는 단계로서 본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나 생각, 정서 등을 학습자간 토론 또는 학습지 등을 통해 작성하도록 교수할 수 있다. 특별히 자기표현에 소극적인 학습자들을 위해 연상되는 것 또는 감정 표현의 예시어를 제안해주는 것이 본 단계의 핵심적 열쇠이다. 다만, 교수자의 정서적 범주와 동일하게 유도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예시어의 스펙트럼을 가능한 넓게 제시해주도록 한다.

3) 3단계

음악적 개념을 적용해서 작품을 묘사해보는 단계이다. 음악의 여러 요소, 예를 들면, ‘리듬, 가락, 화성’등 감상할 제재곡의 특징되는 요소 한 두 개를 골라 교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다양한 음악적 요소의 개념들을 알게 되고, 하나의 요소 안에 차이점들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특별히 이 3단계에서는 ‘비교’의 방법을 통해 각 요소의 구분을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예를 들면, ‘호모포니 텍스처’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면, ‘모노포니’ 또는 ‘폴리포니’양식의 작품을 함께 들려준다. 음악적 개념을 단순히 해당 작품 내에서만 교수한다면 비전공 학습자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 다양한 형태(version)의 작

품들을 준비하여 요소들의 차이를 비교하고 인지하도록 교수하는 것이다.

4) 4단계

음악 작품의 구조와 형식에 대해 설명하는 단계이다. 음악의 전체적인 틀이 어떻게 짜여있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게 되는데, 전공자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인 만큼 쉽게 접근하여 더욱 쉬운 이해를 촉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리를 시각화하여 설명한 다거나 여타 시간예술과 비교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교수자는 학습자의 음악적 배경이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비유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발레나 오페라 등 신체 동작을 수반하는 경우 시각적 구조화를 통해 음악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으며, 가곡의 경우 가사의 붙임새 또한 본 단계에서 구조적인 시각으로 분석할 수 있다.

5) 5단계

다시 한 번 음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히 감상하는 단계이다. 이 때 감상자는 앞부분의 교수학습 내용을 되새기며 다음 단계에서 이어질 작품의 외재적 측면을 생각해보며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요소에 대하여 생각해보며 듣는 순서이니 더욱 집중하여 들을 것을 학습자에게 권고한다.

6) 6단계

작품의 시대·문화적 배경, 의미, 작곡 경위 등 맥락적인 특징을 해석하는 단계이다. 단, 외재적 특징에 대한 해석 또한 내재적 특징이 근간에 있어야한다는 사실을 예로서 보여주어야 한다. 또 앞에서 나온 4단계의 형식 분석단계와 마찬가지로 교수자의 정보 제공이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교수자는 작품 의도, 배경에 대하여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해올 필요가 있다. 대상이 음악 비전공자인 만큼 지나치게 많은 음악사적 지식을 교수하기보다는 교수자의 설명에 입각하여 다채로운 토론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거시적 및 미시적 성격을 동시에 내포하는 발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²⁾ 또 교수자는 해석한 자료의 출처를 알려주어, 학습자가 이후 감상작품에 대해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가능하도록 도와야 한다.

2) 수업 대본 참고

7) 7단계

앞서 알아본 4단계-정서, 개념, 구조, 맥락-의 관점에서 음악적 비평을 해 보는 단계이다. '이 음악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이유', '이 음악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위 4개의 관점에서 근거를 들어 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교수자는 동일한 제목을 가진 다양한 형태(version)의 비교 음원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다른 악기로 연주된 버전, 원래는 가곡이지만 기악곡으로 편곡된 버전 등 학생에게 비평을 위한 더욱 광의적인 시각을 선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8) 8단계

본 수업 모형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음악적 전이 능력이 함양되었고, 아직도 잘 모르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스스로 체크해보는 것이 본 단계의 핵심적 내용이다. 또 학습자는 처음의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음악적인 공감부분에서 가지게 된 정서가 모형을 모두 경험한 본 단계에서의 정서와 일치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작품에 대한 첫 인상 및 선입견 형성에 어떠한 부분이 작용하는지 말할 수 있다.

IV. 전이를 제고한 음악감상 수업 대본

아래의 수업 대본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업모형이 현장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나의 청사진을 그려놓은 것이다. 가장 처음에 있는 '최초 청취 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모형의 단계와 순서가 일치하며, 각 단계마다 핵심질문 기법을 통한 발문³⁾을 활용하였고, 주요 아이디어 원리를 기반으로 해당 감상 제재곡에 적용될 수 있는 음악적 주요 내용들을 추출하여 작성하였다. 교수자의 발문에 기대되는 학습자의 예상 답변⁴⁾ 또한 나타내었고, 그 외는 모두 교수자의 설명 부분에 해당한다. 전체 수업시간은 약 2시간 기준이고, 단계별 예상 소요시간은 각각 별도로 기재하였다.

3) 접댓표

4) 이탤릭체

1. 수업 대본

1) 최초 청취 전(5분)

학습자는 교수자의 설명을 듣고, 음악을 표현할 수 있는 어휘들에 대해 토론하고 기록한다(교수자는 핵심질문 기법으로 발문한다).

우리가 오늘 들어볼 작품은 성악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은 수업 전반에 걸쳐서 다면적으로 접근하며 진행될 거예요, 작품에서 나타나는 ㉠정서적인 측면도 볼 것이고, 리듬이나 선율 또는 음색 등과 같은 ㉡음악의 각각의 요소들을 따로 떼어서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작품의 ㉢전체적 구조가 어떻게 디자인되었는지도 파악하는 시간도 가질 것이고, 또 이러한 음악 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음악의 외재적 측면도 살펴볼 겁니다. 즉, 작품의 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작곡가의 삶, 시대·문화적 배경, 악기의 변천과정 등을 살펴보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또 이렇게 다양한 측면들에서 살펴봤던 것을 기반으로 ㉤작품을 비평(평가)해 보기도 하고, 이어서 다양한 관점으로 음악을 통찰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나 자신의 ㉥음악적 성찰을 수행해보려고 해요. 먼저 가장 처음으로 우리는 감상을 하고 우리가 작품을 통해 느끼는 것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표현해 볼 시간을 갖겠습니다. 느낌을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표현 어휘를 알고 있어야겠지요? 『어떤 표현들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음악에 대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단어들이 필요할까요?』 이것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름답다*는 *말요*, 네 가장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말들이지요? 슬프다, 기쁘다, 우울하다, 신기하다, 독특하다, 춥다, 따뜻하다 등 다양한 표현 어휘들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음악 작품뿐만 아니라 예술 작품을 감상한 후 답이 정해져있지 않은 우리의 내면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어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스펙트럼 또한 다양하게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지요? 그럼 이제 작품을 감상하면서 작품을 통해 어떠한 것이 느껴지는지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며 또 작품의 정서적 뉘앙스를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 청취(2분)

(영상없이) 학습자는 청취가 시작되자마자 느껴지는 정서에 대해 기록한다.

3) 정서적 공감(18분)

청취 완료 후 학습자는 교수자의 설명을 듣고, 작품의 전체를 통해 느껴지거나 연상되는 것들에 대해 간단한 토론하며 기록한다(교수자는 핵심질문 기법으로 발문한다).

네, 음악을 들어보았습니다. 『어떠한 감정을 느끼셨나요? 혹시 어떠한 형태로 감정이입이 되었나요? 각자 공감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시작하는 부분엔 그냥 서정적인 느낌? 잔잔한 느낌? 옛날이야기가 시작될 때의 깔릴 것만 같은 배경음악? 같이 들렸어요. 다 들어보니! 사랑노래 같아요, 사랑을 고백하는 남자의 간절함 같이 들렸어요.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듯한 허무함이 느껴져요. 슬퍼요, 애잔해요. 아!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작곡가나 이 남자 성악가와 피아니스트가 의도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작품을 듣고 발생한 정서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음악을 들을 때 더욱 적극적으로 느낌을 느껴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음악을 들은 후 연상되는 무언가가 있었나요? 네, 왕자가 신데렐라한테 구두가지고 찾아온 장면이 연상됐어요! 엄마가 어렸을 때 저 꼭 안고 재워줬을 때가 떠올랐어요, 마음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감정이나 정서, 연상되는 것에 변화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품의 어떠한 부분에 공감하나요?』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감상을 통한 정서의 환기인지, 망각인지, 극대화인지, 추출인지 등 여러 내면 감정의 변화와 추이를 살펴볼 수 있고, 그 원인을 작품 내에서 찾아볼 수 있겠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상한 음악에 대해 여러분의 공감을 더욱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을 표현 도구로 제시해 드릴게요. 제가 드린 예시 중에 골라서 표현해 볼 수도 있고, 유사한 또는 완전히 다른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겠어요.

〈예시어〉 기쁘다, 슬프다, 애잔하다, 사랑스럽다, 따뜻하다, 난폭하다, 거대하다, 아기자기하다, 원망스럽다, 밍다, 고통스럽다, 행복하다, 불안하다, 찢찢하다, 화창하다, 평화롭다, 구슬프다, 신비롭다, 좋은 예감, 연인, 아버지, 엄마, 자녀, 애완동물, 달빛, 눈 내리는 날, 비 내리는 날, 꽃 피는 장면, 새싹이 돋아남, 새끼를 잃은 어미새

4) 개념적 적용(20분)

학습자는 교수자의 설명을 듣고, (필요시 부분감상 하며) 개념을 적용하여 묘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토론하며 기록한다(교수자는 핵심질문 기법으로 발문한다).

이 작품의 작곡가는 슈만이며, 작품명은 연가곡 시인의 사랑 중에서 '아름다운 오월에(im wunderschönen Monat Mai)'입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각각의 요소를 분리해내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음악의 3요소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리듬이요, 선율이요*. 네, 맞습니다. ‘리듬, 가락, 화성’입니다. 그 외에도 음악을 완성하기 위해 각각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담당하는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셈여림, 빠르기, 음색, 짜임새, 음높이, 아티큘레이션 등이 있지요.

『그렇다면, 음악의 요소를 적용해서 이 곡을 묘사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이 작품의 음색은 어떠한가요? 정확히 어떤 악기로, 어떤 목소리의 음역대로 연주되나요?』 *남자목소리의 노래예요*. 네, 그래요. 한 명의 남자 성악가와 피아니스트가 나옵니다. 특히 이 남자 성악가는 좀 높은 음역대를 노래하는데요, 이런 높은 음역대를 ‘테너(Tenor)’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번엔 여성 성악가(Soprano)가 부르는 버전으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여성 성악가 연주버전 청취〉 들어보니 어떤가요? 확실히 남성의 음색과 여성의 음색이 다름으로 인해 음악의 분위기가 또 변하지요? 그리고 또 사람의 음색과 악기의 음색이 다른데, 그 다름은 적절하게 블렌딩(Blending)되어서 또 다른 음색을 만들어내는 시너지효과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합주의 매력이기도 하죠. 특별히 사람 목소리가 부르는 선율과 피아노 선율! 이것이 같은 멜로디인가요? 다시 한 번 부분만 들어볼게요. *비슷하지만 다르게 들리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같기도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완전히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각각의 선율적 특징은 어떻게지요?』 피아니스트는 성악가가 부르는 선율을 주선율로서 연주하기도 하고 성악가가 쉬는 부분인 전주, 간주, 후주 부분에서 새로운 선율을 연주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이 시대에서 생겨난 독특한 선율적 특징이기도 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후에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 작품을 통해서 각각의 요소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보았는데요, 작곡가나 연주자들마다 각각 특별하게 음악적 표현을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음악이라는 틀 안에서의 이러한 요소들은 하나의 작품뿐만 아니라 모든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재료로서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감상자들은 음악개념을 적용해서 작품에 대해 묘사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5) 구조적 설명(20분)

학습자는 교수자의 설명을 듣고, (필요시 부분 및 전체감상 하며)작품의 구조에 대해 간단한 토론하며 기록한다(교수자는 핵심질문 기법으로 발문한다).

위에서 음악적 개념을 적용해서 작품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구조와 형식에 대해서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음악은 대표적인 시간예술이라고 할 수 있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식이 나타나고 구조가 보입니다. 작품이 모두 끝나야지만 전체

형태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이렇게 음악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예술의 종류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연극이요, 영화? 피겨스케이트도 되나요? 아, 그래요. 다양한 것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 영화는 시간예술이라는 측면에서 음악과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주연과 조연, 주요 사건의 반복 및 진행, 에피소드의 등장, 갈등과 해결 등 유사한 부분이 많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오월에’에서 눈에 띄는 구조적 특징은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종이의 반을 접어놓은 것 같아요. 같은 부분이 반복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들으면 다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바로 가사가 달라지는 것인데요, 선율은 1절과 2절 그대로 사용하고 가사가 달라지는 것, 이러한 것을 유절형식! 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알파벳으로 기호화 하면 AA'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전체 26마디의 아주 짧은 곡이니 전체 악보를 띄어 놓고 봐 볼게요. 앞에 가사가 붙어 있지 않은 부분은 피아노로만 연주가 되는 4마디의 ‘전주부 또는 도입부’ 라고 하구요, 그 다음에 노래가 시작됩니다. 중간에 간주, 끝에 후주가 있어요. 전주, 간주, 후주 모두 노래없이 피아노 연주만 하는 부분이구요. 그럼 ‘하이네(H. Heine, 1797~1856)’라는 사람의 시인 이 가사와 각 뜻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언어는 독일어입니다.

<Table 3> The translation of words into English

Im wunderschönen Monat Mai,	
<i>In the glorious month of May</i>	
Als alle Knospen sprangen,	
<i>As all the buds were breaking</i>	
Da ist in meinem Herzen	
<i>Then in my heart</i>	
Die Liebe aufgegangen.	
<i>Love bloomed</i>	
Im wunderschönen Monat Mai,	
<i>In the glorious month of May</i>	
Als alle Vogel sangen,	
<i>As all the birds were singing.</i>	
Da hab ich ihr gestanden	
<i>Then I revealed to her</i>	
Mein Sehnen und Verlangen.	
<i>My longing and desire.</i>	

선율에 가사를 붙일 때 작곡가는 아무런 고려없이 붙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숙고의 과정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가사를 전달하는 동시에 아름다운 곡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슈만이 가사와 선율을 연결시킨 알고리즘(algorithm)에서 주요한 두 가지 부분만 살펴보면 ‘가사의 선율적 구조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맨 앞에 나오는 가사인 im wunder에서 im은 전치사이고 ‘wunder’는 놀라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슈만은 이 ‘놀라운’이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 ‘im’을 약박(여린내기)인 못갓춤마디에 놓았고, ‘wunder’를 박의 시작이며 강박(센내기)인 갓춤마디의 첫 박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9마디부터 시의 3행이 시작되는데요, 보시다시피 3행은 시상이 변화되는 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슈만은 내용의 전환점을 선율에도 표현하고자하여 선율의 방향을 상행으로 순차진행하는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어요.『그럼, 여러분은 가사와 선율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둘은 일반적으로 어떤 관련성을 갖는다고 설명할 수 있나요?』

6) 재감상(3분)

학습자는 교수자의 설명 듣고, 동영상 자료를 통해 재감상한다.

지금까지는 음악 그 자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음악을 감상할 때 음악의 본질을 먼저 파악하고, 그 후에 음악의 맥락적인 내용들을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음악에 대한 진정한 심미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제가 ‘맥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음악에서의 맥락이란 작품이 만들어진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 작곡가의 삶과 그 당시 처한 상황, 또한 악기의 변천적 맥락, 연주자의 연주 스타일, 표제적 성격 등 음악을 둘러싼 다양한 외부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초청취와 같은 음원을 연주 영상과 함께 청취>

7) 맥락적 해석(20분)

학습자는 교수자의 설명을 듣고, 작품에 대한 개인적, 역사적, 사회적 해석에 대해 토론하며 기록한다(교수자는 참고자료를 활용하며, 핵심질문 기법으로 발문한다).

독일인 작곡가인 슈만(Schumann, 1810~1856)이 하이네의 시(Buch der Lieder 중 첫 번째 시)에 선율을 입혀 시인의 사랑(Dichterliebe, op.48)이라는 연가곡을 1840년에 작곡하게 됩니다. 연가곡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가곡을 연이어 작곡하고 또 연주하는 형태의 양식을 말하는데요, 특별히 이 1840년은 슈만에게 정말 행복한 해이기도 해요. 장인의 극심한 반대를 이겨내고 사랑하는 여인 클라라와 결혼에 성공한 해

이기도 하고, 또 이러한 사랑에 힘입어서인지 수많은 가곡을 작곡해서 이 해가 ‘노래의 해(Liedersjahr)’라고 불릴 정도였으니깐요. 가곡이라는 것은 서양음악사에서 보았을 때 ‘낭만시대’의 특징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전 시대인 고전시대에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을 필두로 하여 음악외적인 것(예를 들면, 슈만이 사용한 이 문학 작품 같은)을 음악과 결합시키는 양상이 거의 없었거든요. 절대음악이 우세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낭만시대에 문학작품이 깊이 발달하게 되면서부터 이러한 가곡 장르의 유행이 가능해진 것이죠. 가곡은 독일어로 Lied, 복수 형태로는 Lieder라고 부릅니다. 슈만은 이 독일 가곡(Lied)의 수준을 높게 끌어올린 주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의 사랑’ 16곡 각각의 제목에서 주는 인상을 한 번 살펴봐 볼까요?

<Table 4> The complete lieder of “Dichterliebe(op. 48, 1840)” by R. Schumann

1. Im wunderschönen Monat Mai, 2. Aus meinen Tränen sprießen,
3. Die Rose, die Lilie, die Taube, die Sonne, 4. Wenn ich in deine Augen she,
5. Ich will meine Seele tauchen, 6. Im Rhein, im heiligen Strome,
7. Ich grolle nicht, 8. Und wüßten's die Blumen, die kleinen,
9. Das ist ein Flöten und Geigen, 10. Hör' ich das Liedchen klingen,
11. Ein Jüngling liebt ein Mädchen, 12. Am leuchtenden Sommermorgen,
13. Ich hab' im Traum geweinet, 14. Allnächtlich im Traume,
15. Aus alten Märchen winkt es, 16. Die alten, bösen Lieder

이 작품은 내용에 있어서 연계성 그리고 완결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곡~6곡은 사랑의 시작을, 7곡~14곡은 실연의 아픔에 대해서, 15곡과 16곡은 지나간 청춘에 대한 허망함과 잃어버린 사랑의 고통을 노래하고 있어요, 제목에서는 아주 약간만 유추해 볼 수가 있지요. 『문학작품, 즉 이와 같이 시와 음악의 결합은 음악의 순수하고 본질적인 가치를 손상시킨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나요? 가곡에 존재하는 가사의 기능에 대해 다면적으로 해석해볼까요?』

그리고 피아노 반주! 이것도 슈만이 특별하게 변화시킨 부분이기도 해요. 이전까지는 ‘피아노 반주부’하면 말 그대로 ‘노래를 위한 도구’쯤이었지, ‘예술적인 가치’는 상대적으로 매우 약했거든요. 그런데 슈만은 피아노 반주 또한 노래하는 사람처럼 주인공으로 여겨줬어요. 그래서 독자적인 선율도 연주하고, 돋보이게 나타내주고 하도록 곡을 썼지요. 이 점은 이 시대에 많은 수의 테크니컬(technical)한 피아노 작품이 작곡된 것과도 관계가 있어요. 피아노의 기술적 위상이 매우 올라간 시대가 이 낭만시대 이거든요. 많은 작곡가들이 어려운 피아노 작품을 작곡하고 연주하고 또 박수갈채를 받고 뽐내는 것이 시대적 유행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가요는 반주의 위상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 가곡과 비교해서 해석해볼 수 있나요? 각각 반주가 없다면 어떤 음악이 될까요?』

8) 비평적 관점(15분)

학습자는 교수자의 설명을 듣고, 지금껏 살펴본 4개의 관점에서 작품을 평가해본다 (교수자는 미리 준비한 비교 동영상 자료를 들려주고, 핵심질문 기법으로 발문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정서, 요소, 구조, 맥락 등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음악을 비평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어요. 여러분! ‘음악비평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요? 전문적으로, 직업인으로서 비평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처럼 일반적인 감상자들도 충분히 비평을 할 수 있습니다. 음악비평이란 음악이 아름다운, 또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 평을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음악을 심미적으로 통찰하는 것이 가능해야해요. 심미란 아름다움의 본질을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음악을 전체적으로 꿰뚫어 관통해서 살펴보는 것을 통해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를 들면, 이렇게 수행할 수가 있어요. 음악의 이러이러한 요소의 특징 때문에 균형감있게 느껴진다, 가사가 있는 가곡을 비평할 때는 시인의 의미했던 바가 음악에서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다, 라는 등 다양한 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들은 슈만의 ‘아름다운 오월’을 듣고, 무엇을 평할 수 있을까요?, 정서, 요소(음악적 개념), 구조, 맥락 이 4가지의 관점에서 각각의 음악적 가치를 평가해볼까요?』 그것을 기준으로 심미적인 통찰을 해보고, 비평하는 시간을 가져보지요.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먼저, 이 음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점’으로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좋겠어요. 『이 곡을 아름답게 만드는 특별한 요소는 무엇일까요?』음색, 선율? 그럼 지금은 사람의 노랫소리로 연주한 것이 아니라 첼로로 연주하는 아름다운 오월을 들어보며 어떤 것이 더 아름다운지 비교하며 평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첼로로 연주하면 전혀 다른 음색일뿐더러 가사도 없겠지요? 〈피아노와 첼로 연주 버전 청취〉

저는 사람의 목소리보다 저음 음색을 가진 첼로로 연주된 것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특징인 ‘문학과 음악의 결합’을 느껴보지 못하는 것이 별로이긴 하지만, 슈만 이 작곡한 이 선율이 저음 음색에서 더욱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9) 종합적 자기 지식(15분)

학습자는 교수자의 설명을 듣고, 해당 제재곡에 대한 각자의 음악적 지식의 상태에

대해 토론하며 기록한다(교수자는 핵심질문 기법을 활용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음악의 다양한 면들을 살펴보면서 각자 음악적 지식이 기존에 어느 정도였는데, 『현재 어떤 것들을 더 알게 되었는지, 아직도 뭘 계속 모르는 것 같은지 스스로 파악해보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처음에 음악을 듣자마자 음악의 첫인상에서 느꼈던 것과 다양한 공부를 한 후 지금 느끼는 것이 같은가요? 본인이 음악을 수용할 때 편견 같은 것이 있나요? 있다면 그 편견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음악적 지식에 대해 성찰, 즉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맥타이와 위긴스의 전이관련 논의를 기반으로 한 음악감상수업 설계를 통해 대학교 음악 비전공 학습자가 생경한 음악을 맞닥뜨렸을 때 주체적으로 깊이있는 감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감상수업모형을 설계하였고, 그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보고자 수업 대본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얻어진 교수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이기반 감상수업 설계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가능하게 한다.

‘전이를 위한 교수적 전략’이라고 소개한 ‘이해의 여섯 가지 측면’, ‘주요 아이디어’, ‘핵심질문’은 모두 학습자가 실제 수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이자 기술이 되며, 보다 적극적인 감상자로 유도한다는 점에서 볼 때 교수자 입장에서가 아닌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각 단계에서 ‘기술적 방법’은 전이 기반의 감상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이자 목표가 된다. 특별히 기술적 방법은 핵심 질문의 원리와 주요 아이디어를 적용한 교수자의 발문과 설명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각 단계에서 ‘음악적 주요 내용’의 설정은 학습자가 어느 음악 작품을 감상할 때에도 수월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공통분모적 성격을 가져야한다. 또한 이는 평가에서도 루브릭(Rubric)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본 수업모형에서 주요 아이디어의 원리를 통해 이미 설정해놓은 개념들을 참고하여 각각의 감상곡에 맞게 주요 내용을 추출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넷째, 비전공 학습들에게 더욱 원활한 전이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예시와 비교, 비유, 대조 등의 방법을 통한 인지적 도제학습 및 상황학습 등과 같은 구성주의적 맥락의 교수·학습이 적절하게 필요하다. 즉, 같은 선율선의 다른 음색적 표현, 한 제재곡에 대한 서로 다른 양식 등 비교를 통한 실재적 과제(authentic Task)의 수행은 비

활성화 지식(inert knowledge)의 생성을 막을 수 있다.

다섯째, 음악교과의 본질이 '소리를 통해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교과'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스피커를 통한 음원뿐만 아니라 피아노나 인성 등 실제 음색을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섯째, 내용면에서 교수자의 더욱 철저한 수업 준비가 필요하다. 음악의 다면적 측면에 대한 감상을 요구하는 수업인 만큼 교수자는 다양한 음악적 지식에서 더 나아가 폭넓은 예술적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겠다. 더욱이 대학교급은 초·중·고 교육과정과 같이 성취기준이 정해져있는 학교급이 아닌 만큼 교수자는 학습자 집단의 현재 상태와 요구를 빠르게 측정할 수 있어야하고, 적합한 교수내용의 설정 및 재구성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수업 모형은 대학교 음악 비전공 학습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교급에 적용할 수 있는데 각 교육기관 또는 학년의 수준 및 특성에 맞게 수업설계를 해야 할 것이다. 즉 이는 교수·학습 대상에 따라 난이도, 도구, 교수법 등 여러 사항의 유연한 적용이 고려되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본고에서 논의한 수업모형은 현장에서의 실행을 통한 효과성 검증을 앞두고 있다. 실제적 수행을 통해 다양한 변수들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더욱 적용가능한 현장 적합형 수업모형으로 완성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로 인해서 다면적이고 심도있게 음악을 바라보는 주체적인 시각을 지니게 되어 음악의 본질적 요소인 소리와 아름다움에 대한 한층 질 높은 유의미한 감상이 가능해진다면 대학교 학습자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리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Baldwin, T. T. & Ford, J. K. (1988). Transfer of training: A review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Personnel Psychology*, 4, 63 - 65.
- Brunner, J. (2015). *The process of education*. Trans Lee, H. W. Goyangsi: Baeyoungsa.
- Choi, J. H. (2016). Relationship between K-12 Public Music Education and Musical Life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29, 183-200.
- Cho, S. G., & Yun, S. I. (2018). Analysis on the effects of music appreciation teaching methods for improving musical vocabulary ability.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Vol. 37, 153-173.
- Choi, W. S. (2015). A teaching approach to the general music education using films: Focused on canon inverse. *Music Theory Forum*, 22(1), 69-93.
-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1). *Dictionary educational studies*. Seoul: Howdongseol.
- Feldman, E. B. (1970). *Becoming human through art: Aesthetic experience in the school*. New Jersey: N. J, Prentice Hall.
- Gagne, E. D., Yekovich, C. W., & Yekovich, F. R. (1993). *The cognitive psychology of school learning*. New York: Harper Collins College Publishers. 352-369.
- Gordon, B. P., & Laurence, B. B. (1982). Coping behaviors that mediate between life events and depression. *Arch Gen Psychiatry*. 39. 1386-1391.
- Gordon, L. W. (1996). College music appreciation: Pedagogical approaches and preliminary findings. *College Music Symposium*. 36. 103-113.
- Grout, D. J., Palisca, C. V. & Burleholder, J. P.(2009). A history of western music(7th ed.). Trans Min, E. G., Oh, J. H., Lee, H. G., Joen, J. I., Jeon, G. Y., & Cha, J. W. Seoul: E&B Plus.
- Halpern, J. (1992). Effects of historical and analytical teaching approaches on music appreciatio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0(1), 39-46.
- Holloway, M. S. (2004). *The use of cooperative action learning to increase music appreciation students listening skills*. *College Music Symposium* 44, 83-93.

- Hong, Y. M., Yoon, K. W., & Lee, M. W. (2015). *GRI Review*, 17(1), 185-211.
- Hyun, K. S. (2011). A study on teaching music appreciation classes using films. *Journal of the Korean Music and Education*, 40(2), 251-278.
- Hwang, E. Y. (2012). A study on the musical activities and musical preference according to coping strategy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9(1), 1-19.
- Joo, S. H., & Lee, M. S. (2015). A teaching plan for college liberal arts music: Focused on western music.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23, 59-77.
- Jung, D. H. (2019).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writing coaching classes, learning satisfaction and learning transitions: Focused on learning flows. *Culture and Convergence*, 41(1), 157-196.
- Jung, H. Y. (2018). Is Empathy for Music Possible and Effective?. *Music Theory Forum*, 25(2), 171-202.
- Kim, M. G. (2005). The relation between constructivism and Dewey's theory of knowledge: A reinterpretation. *Th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4, 23-43.
- Kim, Y. H., & Lee, C. W. (2013). A development of music listening learning tool using VSTi. *Journal of the Korean Music and Education*, 42(2), 119-142.
- Kwon, D. W., Moon, K. S., Seok, M. J., Seung, Y. H., Oh, J. H., Jung, J. E., Jung, J. W., Choi, M. Y., Choi, E. S., Ham, H. J., Park, S. Y., Son, M. H., Ahn, J. I., Lee, Y. S., & Jung, D. W. (2017). *Theory and practice about models of music instruction*. Paju: Kyoyookkwahaksa.
- Lee, B. L. (2015). Qualitative research about meaning of musicing for a person who is visually impaired: Focused on Youngkwang Cantus Choir.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23, 137-156.
- _____. (2018). The development of music criticism instruction model for the visually impaired learner. *Journal of the Korean Music and Education*, 47(1), 169-193.
- Lee, C. S. (2011). *A study on the effects of learning transfer on learner's competency*. Doctoral thesis, Kyung-Hee University.
- Lee, J. Y. (2015). *The function of music listening in emotion regulation*. Doctoral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McTighe, J. (2019). Personal Communication(E-Mail to researcher). 2019.08.15.
- McTighe, J. & Wiggins, G. (2005). *Understanding by design*(2nd ed.). Alexandria, VA :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 _____ (2008). *Understanding by design: Expanded 2nd Edition*. Trans Kang, H. S., Lee, W. H., Heo, Y. S., Lee, J. H., Yoo, J. S., & Choi, Y. K. Seoul: Hakjisa.
- _____ (2011). *The understanding by design Guide to creating high-quality units*. Alexandria, VA: ASCD.
- _____ (2016). *Essential questions. opening doors to student understanding*. Trans Jung, H. S., & Lee, W. M. Seoul: Sahoipyounghon Academy, Inc.
- Min, K. H. (2015). A study on teaching method of music appreciation in smart education. *Research in Music Pedagogy*, 15, 63-87.
- Oh, Y. R. (1999). Understanding of music reception. *Music and Korea*, 17, 154-170.
- Park, K. S. (2016). Analysis about ‘im wunderschönen Monat Mai’. [web log post]. Retrieved October 10, 2019, from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2greens&logNo=220625784003&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 Robert, H. W., & Kimberly, J. B. (2001). Predicting music appreciation with past emotional responses to music. *Journal of Research of in Music Education*, 49(1), 57-70.
- Ruth, V. B. (1996). Listeners' Preference for Music of Other Cultures: Comparing Response Modes. *Journal of Research of in Music Education*, 44(4), 328-340.
- Reimer, B. (2017). 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advancing the vision: 3rd ed). Trans Choi, E. S. & K, D., J. & K, K. H. Paju: Kyoyookkwahaksa.
- Seung, Y. H., Oh, J. H., Jung, J. E., Jung, J. W., Choi, M. Y., Choi, E. S., Park, S. Y., Son, M. H., Ahn, J. I., Lee, Y. S., & Jung, D. W. (2017). *Models of music instruction*. Paju: Kyoyookkwahaksa.
- Sgroi, C. (unknown). Translation of ‘im wunderschönen Monat Mai’. [web log post]. Retrieved October 10, 2109, from http://www.gopera.com/lieder/translations/schumann_048.pdf

- Stolnitz, J (1960). *Aesthetics and philosophy of art criticism*. U.S.A.: the Riverside.
- Stöckler, E. M. (2014). Magazin Erwachsenenbildung Musik hören - Zeit für den Augenblick haben. Ästhetische Wahrnehmung, Erfahrung und Bildung in der digitalen Gegenwart. ['Magazin Erwachsenenbildung' website]. Retrieved June 1, 2019, from <http://www.erwachsenenbildung.at/magazin/14-22/meb14-22.pdf>
- Sung, Y. J. (2018). Culture and arts education in adulthood as a gateway to cultural enjoyment: Focusing on the genre difference. *GRI Review*, 20(3), 287-310.
- Thomas, A. R. (2006). 'Music appreciation' as praxis. *Music Education Research*, 8, 281-310.
- Thomas, S., & Renee, R. B. (2006). *The effect of cooperative listening exercises on the critical listening skills of college music-appreciation student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54(1), 57-72.
- Yoo, M, I. (2013). A study on the interests of music, emotional changes through music & musical activities of university students. *The Treatise on The Plastic Media*, 16(1), 141-150.
- Wiggins. J. (2018). *Teaching for musical understanding*. Trans Choi, E. S., Kwon, D. W., Seok, M. J., Shin, H. K., Oh, J. H., Yoon, M. J., Lee, S. J., Jung, J. E., & Choi, M. Y. Paju: Kyoyookkwahaksa.

Received: 30 November 2019, Reviewed (Revised): 1 January (5 January) 2020

Accepted: 13 January 2020, Published: 31 May 2020

Bolim Lee: E-mail: piano777@snu.ac.kr

Adjunct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96, Seochojungang-ro, Seocho-gu, Seoul-si, Korea